

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4.11.8.(금)		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 진	(02-3145-8170)
		담당자	부국장	김정훈	(02-3145-8180)

금감원,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

- □ 금융감독원은 美 대선 및 FOMC 결과와 관련하여 11.8일(금)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
- □ 이복현 원장은 美 **연준이 정책금리**를 **인하**(25bp)하였으나, 국내 금융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
 - o 그간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고도의 경계감을 가지고,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출 필요
 - o 연말 자금수요, 기업 및 금융사의 신용등급* 변화, 퇴직연금 이동 등에 따른 자금시장 내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
 - * 신용평가사의 하반기 기업어음(CP) 정기 평정(11월 중순~12월)
 - PF 연착륙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**과도한 금리인하 기대**로 정리에 미온적일 수 있으니 부실PF 정리를 속도감있게 진행하면서 정상화 가능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 등 PF 신규자금 공급*을 통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
 - * 은행·보험권은 신규사업장 발굴 확대, 대출 절차 단축 등을 추진 중
 - 특히, 부실비율이 높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선계획을 징구 점검하여 부실에 상응하는 충당금 적립을 지도하고,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
 -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도록 全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

- □ 아울러, 이복현 원장은 차기 美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선거 불확실성은 일단락되었으나, 美·中 정책기조 변화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예상되므로 관련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음
 - 미국의 **산업정책 변화, 친환경 정책축소** 등^{*}에 대비하여 업종별 신용리스크를 **점검**하고 기업들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**금융지원 강화** * 관세부과,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관련 전기차태양광 보조금 축소폐지, ESG 투자 축소
 -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, 지방부채 양성화, 부동산 경기 활성화, 트럼프 관세정책 대응 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
 -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**시장감시**를 **강화**하고, 풍문의 생산·유포 및 선행매매, 시세조종 등 **불공정거래** 정황 발견 시 무관용으로 **엄중 조치**